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1호

2023.03.21(화) 10시

김포FC 유소년축구선수 사망 사건 관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체육시민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서 전달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이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시간” 유소년 극단 선택에 가해자 중징계 질의서 전달

김동환 세계일보 기자

김포FC 유소년팀 유가족의 절규 “아들아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할게”

이준희 KBS NEWS 기자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김포FC 징계 절차 착수

이의진 연합뉴스 기자

2023 전국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

대한체육회,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작

조은혜 엑스포츠뉴스 기자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 창단식

‘낮엔 직장인, 밤엔 선수’ OK저축은행 럭비단의 특별한 이중생활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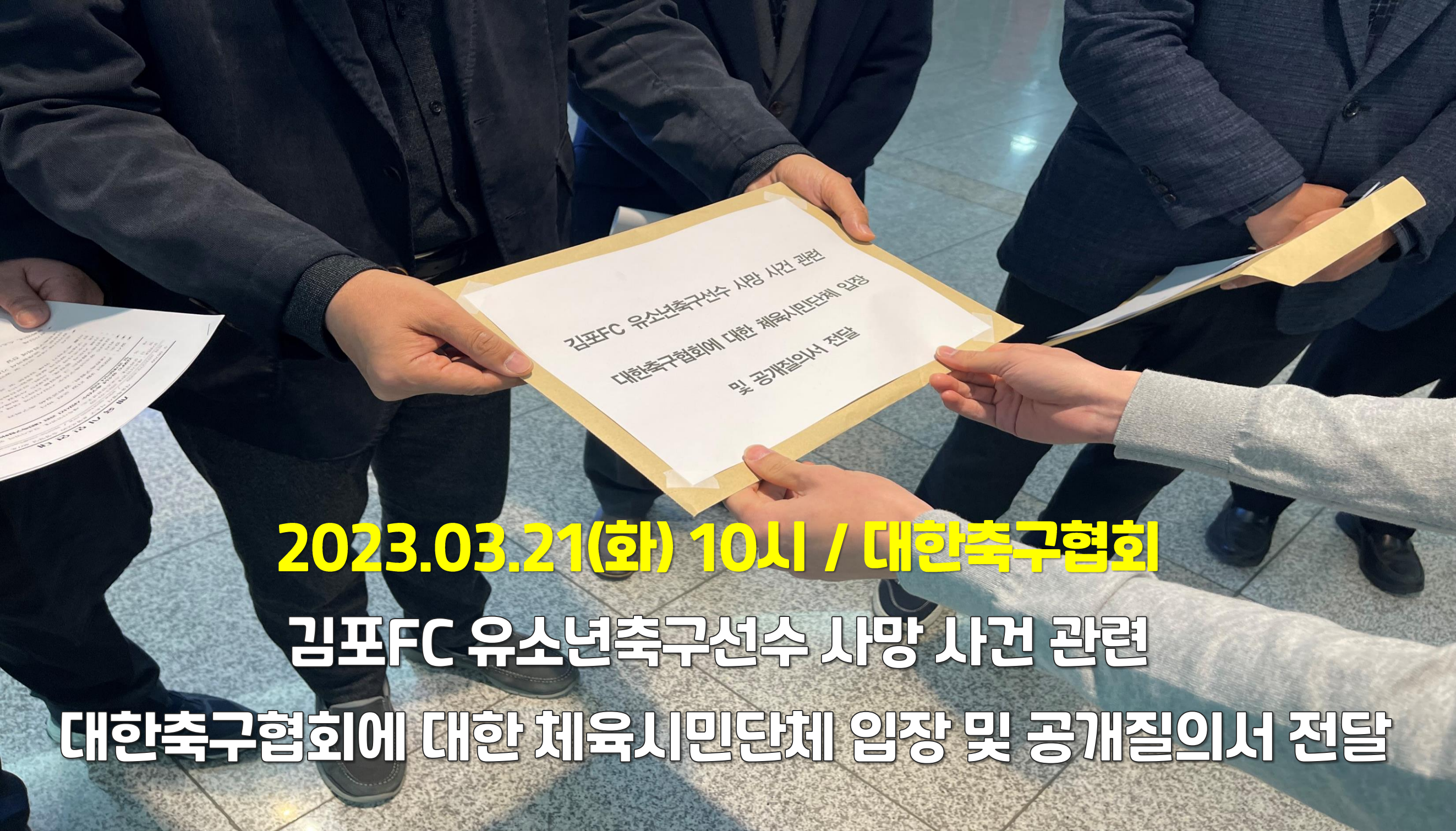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3.03.21(화) 10시 / 대한축구협회

김포FC 유소년축구선수 사망 사건 관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체육시민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서 전달



문서번호 : 체육시민연대 2023-03-20

수 신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참 조 : 서창희 공정위원장, 박경훈 전무이사, 전한진 사무총장

발 신 :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김포시민의 힘

제 목 : 김포FC 유소년축구선수 사망 사건 관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체육시민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서

1. 평소 대한축구협회는 '꿈꾸고 즐기고 나누며... 축구, 그 이상을 위하여'라는 비전으로 경기력 발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축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리스펙트(존중) 캠페인 전개, 축구 행복 지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점 깊이 공감하며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27일, 김포FC의 유소년축구선수가 지도자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가해자들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했지만 김포FC는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지도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온갖 핑계와 합리화로 일관하던 김포FC 서영길 대표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해당 지도자들을 직무 정지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 단지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유소년축구클럽에 소속되어 운동하던 아이가 구단에서 벌어진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부모와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일 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가해 지도자는 물론이고 구단의 대표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축구를 시키지 말걸 그랬어라는 후회와 회한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안심하고 축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선수들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 지도현장에서 어린 학생선수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권지킴이가 되어야 할 지도자가 가해자가 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방관자이자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의 현실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성찰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4.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시간입니다. 8개월간의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유서의 내용은 사실이었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어린 선수가 사망한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가해 지도자들이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채 최근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보란 듯이 재계약하며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김포FC 서영길 대표도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즉각 분리하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땅히 취했어야 했습니다.
5. 대한축구협회는 김포FC 유소년축구선수 사망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사건 처리가 나쁜 선례가 되어 시민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6.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묻습니다.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김포FC 가해 지도자들을 전원 중징계해야 합니다.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무책임한 2차 가해 김포FC 서영길 대표를 퇴출해야 합니다.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축구클럽의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인권 친화적 유소년축구클럽을 만드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인권 친화적 유소년 축구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답변을 조속히 요청합니다.

☎ sports-cm@hanmail.net 02-2279-8999

2023. 3. 21.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김포시민의 힘

“이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시간” 유소년 극단 선택에 가해자 중징계 질의서 전달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 선택 사건에 관한 가해자 중징계 등을 포함한 축구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대한축구협회에 21일 공식 전달됐다. 체육시민연대와 스포츠인권연구소·문화연대·김포시민의 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대한축구협회 측에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관련 입장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단체들은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축구협회도 책임이 있다”며 “협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18세 이하 팀(U-18) 코치 중징계 ▲김포FC 서영길 대표 퇴출 ▲유소년 축구클럽 인권실태 전수조사 ▲인권 친화적 유소년 축구클럽을 만들기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서 유소년 축구 클럽에 소속돼 운동하던 아이가 지도자의 언어폭력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겠나”라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가해 지도자는 물론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 선수들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는 대한축구협회의 시간”이라며 “가해 지도자들이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채 최근까지 아이들을 가르친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재계약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김포FC 서영길 대표도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의 공개 질의서를 현장에서 받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가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열릴 2차 공정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진상 규명과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징계 관련 사안 등을 다루는 공정위원회는 법조인 등 협회 외부 인력 8명으로 구성된다. 전달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숨진 유소년 유족의 진술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로 끝나는 게 아닌 데다가 2차 위원회도 최소 두 달 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회 측이 향후 위원회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는 하지만 소속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확답할 수 없어서다.

현장에서 체육시민연대 등 관계자들에게 협회 측 관계자가 ‘언제 2차 위원회가 열린다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협회 측은 징계 관련 절차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추후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항목에서 언어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팀의 지도자·임원 등에 대해 최소 '경고'에서 가장 크게는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 범위를 두고 있다. 구단에는 벌금이나 승점 감점 등의 징계가 떨어질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협회 측의 입장도 맞는 말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족은 흐르는 시간 앞에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김포시에서 받은 사건 관련 진행사항 요지에서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서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코치들과 구단이 지난해 재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체육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단 측은 수사 기관 등을 통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징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론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걸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했다"고 재계약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구단은 외부 기관 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엄중 대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바깥에 비쳤다고도 항변한다. 재계약도 이들 기관이 제때 조사를 마치지 않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도 펴면서다. 사안이 판명 날 때까지 일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건 일방적 '해임' 통보와 다르지 않다는 게 구단의 입장이다.

구단은 지난 17일에야 서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 3명에 대해 조치하려고 했으나 규정과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족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유족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고, 차후 엄정하게 대처해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남아있는 다른 선수들 지도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 선임 및 유소년 선수 관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10대)군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구단 유소년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힌 가해자 추정 인물들이 언급됐다.

축구인 헌장

1.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Make every effort to play good football)
2. 정정당당하게 경기한다.
(Play fair)
3. 경기 규칙을 준수한다.
(Observe the Laws of the Game)
4. 상대와 동료 선수, 심판과 임원, 관중을 존중한다.
(Respect opponents, teammates, referees, officials and spectators)
5. 패배를 당당하게 인정한다.
(Accept defeat with dignity)
6. 축구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Promote the interests of football)
7. 축구에 해가 되는 부정과 부패, 차별과 폭력을 배격한다.
(Reject corruption, discrimination, violence, and other dangers to our Game)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건물에 있는 '축구인 헌장' 일부. 축구에 해가 되는 부정과 부패, 차별과 폭력을 배격한다는 글(빨간 네모)이 눈에 띈다. 김동환 기자

김포FC 유소년팀 유가족의 절규 “아들아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할게”

코치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떠난 김포FC 유소년 선수 정군의 죽음 이후 약 1년. 김포FC 구단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에서 정식으로 사과했다. 김포FC는 서영길 대표 이름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늦게나마 유가족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했고, 차후 엄정하게 대처하여 철저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누군가에겐 지옥 같았던 열 달...왜 이제서야?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난 이 시점. 약속이라도 한 듯 관련 기관들은 하나 둘 부랴부랴 뒤늦은 사과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 1월 초, 8개월여의 조사 끝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지도자들의 욕설 등 괴롭힘과 관리 소홀, 기본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윤리센터는 징계 의견으로 이 사건을 대한축구협회에 이첩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윤리센터의 징계 의결 이후에도 김포FC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조사 결과가 아직 구단 측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해당 지도자들과 재계약까지 했던 김포 FC는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난 후인 지난 13일, 그제서야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포 구단 측은 재계약 이유에 대해 당시엔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지난주에서야 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도착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도 지지부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초 두 번에 걸쳐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반대로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윤리센터에 이 사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 측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학생과 지도자 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폭넓게 보기 위해 윤리센터 측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포 경찰서는 다음 주 내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형사·민사소송에 가처분신청까지 아버지만 고군분투

지난 열 달의 시간 정 군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여전히 김포FC에 몸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자식의 억울함을 아무도 나서서 풀어주지 않자, 정군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은 소송전의 연속이었다. 지도자들을 형사, 민사 고소했고 지난 3월 초에는 김포FC 유소년 팀을 상대로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돌아온 건 정신적 고통뿐이었다.

"지난 1년을 매일 소주 1병, 2병을 달고 살아요.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건 당시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만 집중해서 치료했을 거라고요.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 군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이 앞으로 축구공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 없이 처음 맞는 정군의 생일날 아버지는 눈물의 다짐을 또 한 번 했다.

"죽을 때까지 해결할 거니깐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할 테니깐 넌 편하게 살아 그곳에서..."

대한축구협회는 20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군 아버지의 소명을 들은 뒤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포FC도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3명의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김포FC 징계 절차 착수

구단 유소년팀 10대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축구 김포FC와 관련, 대한축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축구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2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극단적 선택을 한 A군 유족의 진술을 들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징계 관련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A군 아버지는 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났다. 단순히 빠른 징계보다 이제 철저한 조사가 더 중요하다"며 "공론화가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을 협회에 전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김포시 마산동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시민단체가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구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재계약해 지탄을 받았다.

김포 측은 수사 기관 등을 통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징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구단 관계자는 "여론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걸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포 측은 외부 기관 조사가 길어지면서 구단이 엄중히 대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비쳤다고 항변한다. 문제의 지도자들과 재계약도 이들 기관이 제때 조사를 마치지 않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판명 날 때까지 일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건 일방적 '해임' 통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포 측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아직도 공문 등으로 사실 관계·징계 결정 배경을 알려온 바가 없다고 짚었다.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는 8개월 후인 올해 초 감독·코치 등 지도자와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선수가 중학교 시절 당한 괴롭힘, 지도자의 관리 소홀, 감독과 코치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생활 규칙 위반 시 휴대전화 압수, 삭발 등 지나친 벌칙을 주고,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구단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서다.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는 일 외에는 '권한 밖'이라고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조사관이 1명이고 3년 전 참고인까지 조사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개별 구단에 연락을 취할 이유가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자체 징계를 미룬 이유로 센터의 '늦장'과 '비협조'를 드는 건 곧 기관의 운영 방식을 오해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인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이 정도 일이 일어났으면 나중에 소명되더라도 당장은 도의적 책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등 조직이 법원과 같은 외부 기관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야 부랴부랴 내부 징계에 나서는 '소극적' 관행이 이번 사태에도 반복됐다는 진단이다. 허 교수는 "재계약한 건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린 셈"이라 비판했다.

서영길 김포FC 구단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사과문을 내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 3명에 대해 조치하려고 했으나 규정과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족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어 논란이 됐던 지도자 3명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작

대한체육회가 3월부터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시작,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끈다.

2023 전국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은 52개 종목(골프, 배구, 배드민턴, 빙상, 육상 등) 83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호인 선수의 기량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체육대회의 종목별 분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번 3월에 개최되는 3개 대회(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3.18.~19.),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동호인대회(3.25.~26.), 제40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3.25.~26.))를 시작으로 1년간 83개의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한다.

특히 대회 운영 기본 안전지침과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종목단체에 배포해 생활체육대회의 안전과 스포츠 인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4월내에 종목단체 대회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스포츠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여러 종목의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대회 여건을 강화하여 동호인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낮엔 직장인, 밤엔 선수’ OK저축은행 럭비단의 특별한 이중생활

“처음엔 몸이 적응이 안 돼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밤에 운동하는 게 재밌습니다.

한국 럭비의 다섯 번째 정식 실업팀으로 탄생한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 주장 한구민(28)의 말이다. OK금융그룹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 컨벤션홀에서 창단식을 열고 ‘웃맨 럭비단’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웃맨’은 OK금융그룹의 ‘OK’를 왼쪽으로 돌리면 ‘웃’이라는 한글과 모양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OK금융그룹의 마스코트다. 웃맨 럭비단 국내 선수들은 정식 실업팀 소속이지만 독특하게 일과 운동을 병행한다. 낮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야간과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한다.

OK금융그룹은 ‘일하는 럭비선수, 일하면서 운동을 즐긴다’라는 모토로 2016년부터 럭비선수 특별 채용을 통해 4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28명이 외국인선수 4명과 함께 25일 개막하는 ‘코리아 슈퍼럭비리그’에 나선다. 한구민은 “회사에선 생계를 위해 대출 심사나 채권 추심 업무를 맡는다”며 “업무를 마치고 야간에 훈련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몸이 적응 안 되고 힘들었지만 점차 선수들이 적응했다. 이제는 밤에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밝혔다. 사실 마음먹으면 운동에 올인하는 전문 프로팀처럼 만들 수도 있었다. 실제로 OK금융그룹은 남자 프로배구팀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럭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최윤 회장은 “선수들이 럭비를 통해 경험한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는 걸 느끼고 모든 스포츠에도 확장됐으면 한다”며 “선진국형 아마추어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 시작이 웃맨 럭비단이다”고 설명했다. 초대 사령탑도 특별한 인물이다. 바로 일본 럭비계에서도 인정받는 재일동포 오영길(55) 감독이다. 오영길 감독은 재일 조선인 고등학교인 오사카조선고급학교(오사카조고)의 럭비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의 실제 주인공이다. 오사카조고를 이끌고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일본 럭비 전국 대회 4강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후 일본 럭비 리그원 디비전3 NTT 도코모 럭비단 아카데미 코치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에 출전하기도 했다. 오영길 감독은 취임 소감으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중·고교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보고 ‘나도 이 팀에서 뛰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서 감독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럭비가 한국에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럭비를 통해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선수들과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최윤 회장은 “오영길 감독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지도자다”며 “웃맨 럭비단이 국내 무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책임자다”고 말했다. 오영길 감독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지역 동아리 등을 지도하면서 교류하는 동시에 코칭 스킬, 인성 교육을 함께 논의하면 한국 럭비도 일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길 감독을 보좌할 코치로는 2020 도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의 첫 올림픽 진출을 이끌고 투혼을 발휘해 많은 감동을 안긴 안드레 진(32·한국명 김진)이 함께 한다.

지난해 현역에서 은퇴한 뒤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드레 진 코치는 “한국 스포츠가 사회 발전상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면 가능성이 보인다”며 “한국 럭비를 계속 도와주고 싶어서 코치를 맡게 됐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다음 걸음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2021년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 당시 한국 대표팀에서 S&C 코치(체력 및 컨디셔닝 코치)로 활약한 남창수(55) 코치도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남테이코 의학 기술 전문학교 출신인 남창수 코치는 일본 실업팀 NEC 그린 로케츠 등에서 코치 경험을 쌓았다.

주간 스포츠 소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실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35545288&mediaCodeNo=258>

[김세훈의 스포츠IN] 축구 기자가 본 야구 대표팀 부진 원인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3201806013&sec_id=510101&pt=nv

“운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패션업계, 스포츠 브랜드 ‘승부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12839/?sc=Naver>

휠체어 계단에 내동댕이 친 美 스포츠 금수저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7_0002230784&cID=10101&pID=10100

스포츠 초보자, 의욕 앞서다 ‘뼈’아픈 부상 당한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79>

전세계 인기스포츠 1위인데... '치매' 위험 높인다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17/2023031701982.html

[카드뉴스] 스쿠버다이빙(스킨스쿠버)! 제대로 알아야 안전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545>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2개 초교와 지원 협약... "제주 테니스 거점으로"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82>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서 8월 개최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45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